

취미활동 넘은 나눔 실천 본보기

무주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 지원 12개 동아리, 공연·재능 기부 등 공동체 활성화 앞장

무주군은 시군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지역 내 12개 동아리가 취미활동을 넘은 나눔 실천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센터장 최일섭)를 통해 공동체 동아리 육성 사업 참여 동아리를 공개 모집했으며,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선정한 12개 동아리에는 3월부터 감사비와 재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이 된 동아리는 공연, 요리, 공예, 환경봉사 등을 하는 단체들로 지원받은 사업비로 교육과 연수를 진행,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지

속적인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 동아리를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각 동아리 특성을 살린 요양원 무료 공연과 소외계층 무료 체험 지원, 동아리 제작 물품 기부 등은 개인의 취미생활을 넘은 재능 기부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자수, 재활용, 리폼 동아리 ‘뽀짝라 뽀짝라’은 6회에 걸친 활동으로 직접 제작한 신생아 이불을 지역 내 임산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무주군보건소의원에 기탁했다. 이불은 도안부터 자수, 솜을 삽입해 누비기까지의 전 과정을 회원들이 직접해 그 의미를 더했다.

최일섭 무주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장은 “시군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지역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과 사회참여 확대를 돕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지역 연계 활동이 활발해져 동아리 지원의 미가 살아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역량강화, 중간지원조직 구축, 농촌 과소화 대응, 마을신문 발행, 농촌활동가 육성,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현장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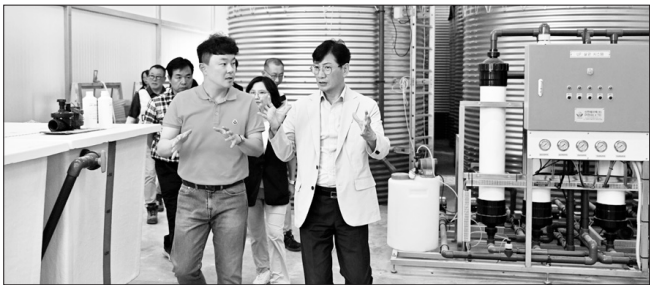
이달말 준공 앞두고 추진 상황·시공 상태 등 살펴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26일 장수를 두산리 일원에 조성 중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의 이달말 준공을 앞두고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스마트팜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전반적인 공사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입주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최 군수는 시공사인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관계자로부터 시설 조성 추진상황과 준공 준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온실 시설을 둘러보며 공사 마무리 상황을 직접 확인하며 주요 설비 및 기반시설의 시공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현장에서 최 군수는 “임대형 스마트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26일 장수를 두산리 일원에 조성 중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의 이달말 준공을 앞두고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팜은 기후위기, 고령화, 인력 부족 등 농업의 구조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대안이다”며 “스마트팜 준공 이후에도 누수 등 하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마무리부터 준공 점검까지 철저히 진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장수군은 동부권 스마트 농업 중심

지로 도약하기 위해 2022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총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해 2024년 착공 후 총 4ha 규모의 스마트팜 유리온실 3동을 조성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지난 27일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남수 의원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농촌기본소득 도입 촉구’, 장정복 의원의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한 비상소화장치 설치 제언」에 대한 5분 발언을 시작으로,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안 등을 심사·의결하고 15일간 진행

된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한국희)에서는 7개 읍·면, 9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개선사항 제시와 함께 사후관리, 향후 사업장의 건설 운영 등을 강조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국희)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안 심사를 통해 전년도 예산안의 집행실적 및 이월 현황, 지출



의 적정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또한,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현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오는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향후 1년간 운영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의료 공백 해결 공로 인정

장수군, 전북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장수군이 지난 28일 전주시 왕의 지빌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전북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며 도내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일궈냈다.

이번 대회는 도내 14개 시군이 제출한 총 23건의 규제혁신 사례 중 1·2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 6건을 발표하고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확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장수군은 ‘산서면의 의약보급 예외 지역 지정으로 의료 공백 해결’이라는 주제로 사례를 발표했고 제도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끈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에 따르면 의약보급 지역인 산서면은 의료기공 및 약국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대표적인 의료취약지로 유일한 약국이 개인 사정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은 교통을 이용해 인근 임실군 오수면까지 가서 약국을 이용해야만 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장수군은 주민 불편 해결을 위

해 행안부 중앙 규제 개선과제안으로 요구하고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전상정 회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의약 분업 예외 지역’ 지정을 이끌어냈다.

덕분에 산서면 보건지소에서는 진료·처방과 함께 약 제도가 가능해져 약을 골바로 수령할 수 있고 지역 약국에서도 의사 처방전 없이 최대 3일분의 전문 의약품 판매가 허용돼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이번 산서면 사례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 고령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든 점과 향후 제도 확산 가능성 등에서 주목을 받았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의료 문제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이어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이투라 진안군의원,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관한 조례 제정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욱)는 이투라 의원(가 선거구·사진)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5일 제300회 제1



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본 조례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부수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인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진안군 농어촌관광 활성화 제고를 통한 진안군 내 소득증대 기여를 위해 제정되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이투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진안군 농어촌민박사업 기반 강화와 농어촌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관광산업을 포함하여 진안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들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군·북전주세무서, 국제·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협약

무주군(군수 황인홍)이 북전주세무서(서장 최은경)와 지난 28일 무주군청 군수실에서 ‘국제·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및 운영(2025. 8. 1.~)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납세자 편의 증진과 세무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제와 지방세 관련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은 협약을 기반으로 통합민원실 운영을 위한 사무 공간을 민원봉사



과 2층에 조성해 무상으로 제공하며, 북전주세무서는 이곳에 전산장비와 사무 집기를 갖추고 전문적인 세무 상담 및 민원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위
예천양수발전소 벤치마킹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는 지난 26일, 폭염과 장마가 이어지는 늦은 날씨 속에서도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경북 예천양수발전소를 방문해 성공적인 유치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2년도에 준공된 예천양수발전소는 국내에서 7번째로 준공된 발전소로, 단일호기로는 국내 최대용량인 400MW급 2기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서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주민 주도로 유치를 이끌어 낸 모범적 사례로 꼽힌다. 이는 ‘지역과 함께하는 발전소 건설’을 지향하는 진안군의 유치 방향과도 부합해 큰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날 구동수 유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과 군 관계자 등 30여명은 먼저 이주 마을인 송월리를 찾아 당시 주민들의 유치 활동 과정과 건설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천양수발전소 내부를 직접 견학하며 발전소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상부담 인근에 조성되어 소백산이 한눈에 보이는 우수한 경관의 하늘자락공원을 관람하며 양수발전소 주변을 관광자원과 연계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백운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주거 안정과 인구 유입을 위한 ‘백운면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총 12세대로 농촌 유학가족, 신흥부부, 청년, 신흥부부, 귀농·귀촌인 등이 대상이다.

백운면 행복주택은 59㎡형 8세대, 69㎡형 4세대 등 총 12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 정착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큰 호응이 기대된다.

입주 신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입주 선정 대상자에게는 7월 16일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이후 입주는 8월 중 시작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곡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